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조 교육운동의 새 지평을 열자



남아공노동교육원(Ditaba) 주최 '교육운동기 대회' 기 98.9.16~19일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노조 교육운동의 새 지평을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 지난 9월 중순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좁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불음이었다. 이런 불음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노조교육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교육운동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함께 안은 것이었다. 노조 교육을 둘러싼 안락의 정황들을 요망한다면, 넓고 아득한 바다를 대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다 해도 여차피 지평의 상태에서는 벗어나야만 하고, 어떤 경우에도 노조 교육운동은 새 지평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지점에 이르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터이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자

남아공의 노동자 교육기관인 디타바(Ditaba)는 지난 9월

교육참가자들이
모든 걸과를
각종 자료를 이용해
꾸었다.



16일부터 19일까지에 걸쳐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활동가 대회'를 열었다. 대회의 슬로건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자'였다. 디벨라의 정식 명칭은 「노동자를 위한 훈련·지원·교육개발원」(Development Institute for Train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Labour)인데, 그 줄임 말인 디헬라는 남아프리카 토속어로 '길'을 뜻한다. 여기에다 '힘있는 노동운동으로 가는 길'이란 해석이 따른다. 이 기구의 예산은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기금에서 주로 출연되고, 운영은 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조와 노동단체 교육활동가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텔에서 합숙을 하며 호텔 앞에 붙은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은 첫날 저녁 7시에 시작되었는데, 노래나 민중의례는 없이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였다. 맨 먼저 한 교육활동가가 나서 자작시를 낭송했는데, 시 제목은 '사회주의는 나의 미래'였다. 그런 다음 디벨라의 이사장 벨레 파파네(남아프리카노동조합대회(COSATU) 교육국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부이

사장인 마이크 라이안(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EDUSA) 교육국장)의 참가 단체와 외국 초청 인사의 소개가 있었다. 노조 전국중앙조직의 지도 간부들의 메시지와 노동부 관계자, 여성위원회 대표의 축하 연설이 이어졌고, 중간 중간에 역할극과 살아온 이야기 발표, 시 낭송 등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열린 대회를 되돌아보는 순서도 들어 있었다. 개막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참가자들은 흑백 구분 없이 한결같이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기에 한 모습을 드러냈다.

노조 교육을 둘러싼 인구의
동향들을 요약한다면, 넓고 아득한
바다를 대하는 노경에서 틀었다.
그날도 폭도 어차피 지금의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노조 교육운동은 새 지평을 열지 않으면
인들 지평에 이르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타이도.

교육과 조직발전의 결합 강화를 위해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큰 주제는 '새로운 시각 찾기'였다. 워크숍은 4개의 분과로 나뉘어졌고 참가자들 스스로 분과를 선택했다. 1분과는 노조 교육이 담당한 도전, 2분과는 체계와 자격 인정, 3분과는 조직발전과 교육의 결합, 4분과는 부분별 교육의 통합이 토의 주제로 정해졌다. 나는 분과를 고르다 3분과를 택하게 되었다.

먼저 워크숍을 이끌 진행자로부터 이 분과에서 다룰 주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 뒤, 몇 사람씩 모여 서로 경험교환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더

반에서 왔다는 백인 여성이 나에게로 다가와 "언제부터 노동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1972년부터 노조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다시 그 여성 동지는 "노조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일이나"고 물었다. 나는 "아마도 교육 참가자들이 자기의 인생곡선을 그런 내용을 대할 때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 여성 동지는 무언가 짚이는 데가 있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음으로 이야기 들려주기(Story Telling) 순서가 진행됐다. 비의 신과 간부 대회 그리고 대중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 이야기였다. 4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의미와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을 놓고 토의가 이루어졌다. 모두들 일성적으로 참여했고 해결방

안보다는 질문을 다듣는 네 오히려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렇다. 문제를 발굴하고 틀음을 이끌어 내는 일이어야말로 교육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교육은 대중들에게 힘과 해답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스스로 이끌어 내게 하는 작업이다”라는 말이 진행자의 입을 통해 표현되기도 했다. 각 부임은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 마무리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조들과 노동단체들은 각 조직이 발간하고 있는 노보, 책자, 연구보고서, 인쇄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각 분과에서 행한 워크숍의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평가도 있었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로는 ‘국제적 도전과 노조교육’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맨 먼저 나의 ‘한국 노동운동의 상황과 노조교육’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요지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의 합리화 추진과 그것이 노동운동에 대해 작용하는 영향들을 설명하고, 노조운동의 대응투쟁과 목표, 노조운동의 개혁 동향을 밝히면서 노조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고민의 지점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내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잠비아, 영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끝내고 이날 일정은 마무리됐다.

새로운 행동양식 찾기

셋째 날의 주제는 ‘새로운 행동양식 찾기’였고, 프로그램은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얼을 깨기’ 순서가 짧막하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둘째 날의 워크숍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심 테마가 되었다. 그런 다음 워크숍이 분과별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는데, 1분과는 연극, 2분과는 비디오, 3분과는 오디오, 4분과는 포스트와 벽 신문 제작이었다. 나는 1분과를 선택했다.

연극분과는 먼저 참가자들이 원을 그리듯 둘러서서 한 기운에 유리컵을 놓아두고, 자기 이름을 대고는 눈을 감고 걸어나가 유리컵을 잡는 놀이부터 시작했다. 정확히 잡는 사람은 몇 안되었지만 서로 얼굴을 익히는 때는 안성맞춤이었다. 다음으로 진행자가 노동교육에서 연극이 갖는 기능을 잠깐 설명하고는, 연극 순서에 들어갔다.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몇 명이 모여 불탄을 털

어놓는 가운데 조직 활동가가 찾아가 노조 조직을 시도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나가 조직을 시도했으나 회사 관리자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연극이 의도한 것은 조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 같았다.

참가자들이 무엇을 얻었으며, 대회의 결과가 어떤 성과로 나타났는지 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표정들이 무척이나 밝은 것처 비수어 대회는 매우 유익함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극분과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시 4개 분임으로 나뉘어 연극 줄거리를 짜고 역할을 분담해 연습을 진행했다. 내가 들어간 분임은 지부장의 지도방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과격한 성격의 지부장이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물러나고 타협적인 지부장이 선출되었으나, 이 지부장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물러난 뒤 다시 민주적인 지부장이 선출되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활동을 추진하는 줄거리였다. 결국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내 줄거리를 짜고 스스로 참여하여 진행

하는 프로그램이 된 셈이다.

오후에는 각 워크숍 분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극분과의 각 분임이 구성한 연극들이 발표되었고, 비디오 분과와 오디오 분과의 분임들이 제작한 작품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포스트와 벽 신문 분과가 만든 작품들은 대회장 벽면에 전시되었다. 이어 종합토의와 평가 순서가 진행되고 이날의 워크숍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밤에는 우리로 치면 '한결의 밤'이 진행되었는데, 술과 음료수는 각자가 사서 마시고 노래에 맞추어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신나게 춤을 추었다. 춤은 격식 없이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양식이었다. 나도 그들과 어울려 어색하지 않게 춤을 출 수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동지적인 태도로 대해 주었고 순박하고도 무구하기까지 보였다.

마지막 날의 주제는 '노동자 교육운동 전개'였다. 먼저 디릴라 대표인 크리스 보너가 '노동자 교육운동 전개를 위한 방향'에 관해 기초발제를 했다. 지난해 열린 대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교육운동 전개에서 강조되는



교육법정 심습의 일환으로 전개된 연구회 교육자들이 직접 참가하고 있다.



사람들을 설명했는데, 교육활동가 집단의 역할, 부문별 교육활동의 결합,

교육재정, 교육방법, 조직과 운영, 교육체계, 교육활동망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다음으로 노조교육의 재정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조와 노동단체 사이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논의되기도 했다. 대회의 평가는 참가자가 미리 나눠준 평가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해서 3박4일 동안의 대회는 끝이 났다. 참가자들이 무엇을 얻었으며, 대회의 결과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돌아가는 참가자들의 표정들이 무척이나 밝은 것에 비추어 대회는 매우 유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조교육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번 대회에서 토의되고 채택된 노조교육의 비전과 원

척이 자주 거론되고는 했다. 그런 비전과 원칙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비전의 내용은 이러했다. 노조교육은 강력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동력화적인 한 축을 이룬다. 또 노조교육은 조합원, 대의원, 지도부와 참모들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률적인 노조운동가로 발전시키고

같은 시교방식이나 타생계 갖은
노동운동으로는 노조교육의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업을
해드리듯 넓은 틈을 과감히 극복해야만
한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으로
가는 길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시민사회 조직과 더불어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를 위해 모든 노조들이 동의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일관성 있고 통합된, 그리고 유연하고도 동역화적인 노조교육 체계가 요구된다. 이 체계는 규모가 크고 질 높은 노조 교육, 훈련, 의사결정, 지원을 이끌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역량은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교육활동가의 망과 노조가 뒷받침하는 큰 영역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견실한 하부구조와 충분하고도 안정된 재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의 추진이 요구된다.

노조교육의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은 노조운동의 목표 목적 요구 원칙 정책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노조교육의 전면적인 책무 관리 형태 내용 준비 등은 노조가 담당해야 한다.
- 노조교육의 중심적인 의도는 집단조직으로서 노조를 건설 강화하고 모든 차원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 노조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 노조교육은 개인의 발전도 도와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조직의 집단적 요구에 집중되어야 한다.
- 모든 노조교육 활동에서는 남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노조교육에 사용되는 교육방법은 참가자 중심의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것

이 되어야 한다.

- 노조교육은 사용자와 정부 그리고 재정부원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노조교육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부문에 대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들 부문을 포함해 실시되어야 한다.

노조교육 개혁은 얼음을 깨뜨리듯

한국 노동운동은 현재 시대적 격변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여 자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노조교육 활동도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다. 먼저 노조교육 정책기구를 구성하여 노조교육 활동의 중심기적

비전과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교육기금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의 체계화를 정비·강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능한 교육활동가를 대량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조교육 활동에서 떠오른 주요 과제들은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굳은 사고방식이나 타성에 젖은 행동양식으로는 노조교육의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얼음을 깨뜨리듯' 낡은 틀을 과감히 극복해야만 한다. 그것이 '힘있는 노동운동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남아프리카의 노동교육단체들도 대회에 참가하여 홍보 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키냐이대학 전시장.